



Re : Heritage Connect / 다시 무형유산으로 연결되다

# 무형유산 페스티벌

## K-Intangible Heritage Festival

2020.8.13(목) ~ 15(토)

국립무형유산원 일원





Re : Heritage Connect / 다시 무형유산으로 연결되다

# Intangible Heritage Festival

August 13<sup>th</sup> (Ths.) ~ 15<sup>th</sup> (Sat.) 2020

National Intangible Heritage Center



# 국립무형유산원을 소개합니다

National Intangible Heritage Center

국립무형유산원은 인류의 무형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후손들에게 온전히 전승하기 위해 설립된 세계 최초의 무형유산 복합행정기관입니다.

우리나라 무형문화유산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상설전시실, 다양한 주제들로 꾸며진 기획전시실, 전통의 멋과 흥을 느낄 수 있는 공연장, 무형유산 영상(자료)을 통해 과거를 만날 수 있는 아카이브 자료실, 해외 무형유산과의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지는 국제회의실, 무형유산의 즐거움을 온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 교육 공간 등 분야별 특성에 맞는 시설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손에 잡히지 않는 무형문화유산을 생생히 느끼고, 만지고, 체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립무형유산원의 주인은 무형문화재 전승자들과 국민 여러분입니다. 국가무형문화재 전승자들에게는 앞으로의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전승과 활용의 거점으로서 국민들에게는 무형유산을 느끼고 배우고, 즐길 수 있는 살아있는 문화체험의 공간으로 자리매김 하겠습니다.

National Intangible Heritage Center (NIHC) is the first complex administrative institution for safeguarding and transmitting Korean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CH).

The center consists of various facilities, such as permanent/special exhibition halls, performance halls, archives, international conference rooms, and learning spaces. NIHC will be a Korean ICH hub and a core of the international network of ICH. It actively cooperates with Asian-Pacific and African nations, as well as Europe and America.

The true owners of NIHC are the successors of ICH and its people. As such, NIHC focuses upon providing the most valuable experience about ICH to our visitors.





Re : Heritage Connect / 다시 무형유산으로 연결되다

# 무형유산 페스티벌

## K-IntangibleHeritageFestival

### 목차 Table of Content

---

#### 01 행사 개요

Event Outline

#### 02 타임테이블

Time Table

#### 03 공연 프로그램

Performances

- 이판사판 스테이지  
Stage of Connection
- 동고동락 스테이지  
Stage of Togetherness
- 이구동성 스테이지  
Stage of Harmony

#### 04 오시는 길

Directions



## 01 행사개요 Event Outline

---

**행 사 명** 2020 K-무형유산 페스티벌  
**Eventname** 2020 K-Intangible Heritage Festival

**주 제** Re: Heritage Connect :다시 K-무형유산으로 연결되다  
**T o p i c** Re: Heritage Connect

**기 간** 2020. 8. 13. (목) ~ 8. 15. (토) / 3일간  
**Period of Event** 2020. 8. 13. (Ths.) ~ 8. 15. (Sat.) / 3days

**장 소** 국립무형유산원 일원  
**Location** National Intangible Heritage Center

**주최 · 주관** 국립무형유산원  
**H o s t** National Intangible Heritage Center



### 8월 13일 (목 / Ths.)

🕒 17:00 ~ 18:20

얼쑤마루 대공연장 『동고동락 스테이지』

Eolssumaru Performance Hall 『Stage of Togetherness』

### 8월 14일 (금 / Fri.)

🕒 17:00 ~ 18:20

얼쑤마루 대공연장 『동고동락 스테이지』

Eolssumaru Performance Hall 『Stage of Togetherness』

🕒 19:30 ~ 21:10

중정 야외무대 『이판사판 스테이지』

Courtyard Outdoor Stage 『Stage of Connection』

### 8월 15일 (토 / Sat.)

🕒 17:00 ~ 18:20

얼쑤마루 대공연장 『이구동성 스테이지』

Eolssumaru Performance Hall 『Stage of Harmony』

🕒 19:30 ~ 21:10

중정 야외무대 『이판사판 스테이지』

Courtyard Outdoor Stage 『Stage of Connection』



# 이판사판 異板似板 스테이지

Stage of Connection

---

8월 14일 (금 / Fri.) ~ 8월 15일 (토 / Sat.)

19:30 ~ 21:10

중정 야외무대 / Courtyard Outdoor Stage



## 03 공연 프로그램 Performances



### “전통과 현대의 콜라보!”

다를 이(異), 이을 사(似). ‘각양각색의 공연이 하나의 맥으로 연결된다.’ 한국 전통에 새로움과 소통을 더해 각광받고 있는 힙한 팀들의 공연을 선보인다. 미래의 K-무형유산을 미리 엿볼 수 있는 무대

### 공연 프로그램

우리소리 바라지 <비손, 무취타> / 최병진 이수자팀 <남사당놀이>  
권송희 <인당수, 뱃노래, 축원>

[8월 14일]

서도밴드 <조선팝> / 이발사&EDM <국악EDM>

[8월 15일]

두번째달&김준수&채수현 <에스닉퓨전> / 유희스카 <유희스카>

### Performance Intention

#### “Collaboration between Tradition and Modernity!”

“Various performances are connected by a single pulse,” and it is presented by hip teams who are in the spotlight by adding novelty and communication to Korean tradition.



국립무형유산원

National Intangible Heritage Center

## 03 공연 프로그램\_이판사판 스테이지

Performances\_Stage of Connection

### 우리소리 바라지

‘바라지’는 전통음악에서 판을 이끌어 주던 소리에 보태지는 반주자들의 즉흥소리를 의미한다. 특히 진도씻김굿에서 바라지 소리가 극대화 되어 독특한 음악양식을 이루는데 ‘우리소리 바라지’는 바로 이 음악 양식을 주된 표현방식으로 삼는 팀이다. 소리, 타악, 기악 등 전통음악 중에서 시대적 감각과 통할 수 있는 요소를 간추리고 다듬어 새롭게 재창조했으며 세계 최대 월드뮤직 박람회인 WOMEX의 공식 쇼케이스로 선정되는 등 국내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실력을 인정 받고 있다.



- 예술감독 - 한승석
- 소리 - 김윤희, 김우정
- 가야금 - 김민영
- 대금 - 정광윤
- 피리 - 이재형
- 아쟁 - 조성재
- 징 - 강민수
- 북, 장구 - 강성현

### 비손, 무취타

손을 비비며 읊조린다는 의미의 ‘비손’은 가족을 위해 빌던 어머니들의 기원과 전통 비나리의 노랫말을 활용하여 남도소리제로 짠 작품이다.

‘무취타’는 ‘무속가락으로 불고 친다’라는 뜻으로 팽과리, 장구, 북, 징, 그리고 태평소가 어우러져 우리의 히로애락을 표현한다.

### 진도 씻김굿

국가무형문화재 제72호 인 진도 씻김굿은 망자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천도굿으로 죽은 이의 영혼이 이승에서 풀지 못한 원한을 풀고 즐겁고 편안한 세계로 갈 수 있도록 기원하는 굿이다. ‘씻김’이란 말은 이승에서 살 때 맺힌 원한을 지우고 씻어준다는 의미에서 비롯되었다.

## 남사당놀이

국가무형문화재 제3호인 남사당놀이는 꼭두쇠(우두머리)를 비롯해 최소 40명에 이르는 남자들이 구성된 유랑연예인인 남사당패가 농어촌을 돌며, 주로 서민층을 대상으로 조선 후기부터 1920년대까지 행했던 놀이다. 남사당놀이는 서민층에서 발생하여 서민들을 위해 공연된 놀이로서 당시 사회에서 천대받던 한과 양반사회의 부도덕성을 놀이를 통해서 비판하며 풀고, 민중의식을 일깨우는 역할을 했다. 이번 공연에서는 풍물놀이를 시작으로, 곰방대나 고챙이로 납작한 접시모양의 버나를 돌리는 '버나놀이', 그리고 나이 어린 소년을 뽑아 여장(女裝)을 시켜 남자의 어깨 위에 올리고 노는 '무동놀이'와 '열두발상모놀이' 등이 선보인다.



## 최병진 이수자팀

- 국가무형문화재 제3호 남사당놀이 이수자  
- 사단법인 인천남사당놀이 보존회 공연팀장

- 버꾸/버나 - 최병진
- 장구 - 이지민
- 버나/공마당 - 박준섭
- 버꾸/버나 - 남영희, 백승희, 이철나
- 상쇠 - 김정주
- 태평소 - 이은송
- 북/공마당 - 김영생
- 무동 - 양소희, 박지은, 정혜인, 변지영
- 징/열두발 - 권재환
- 새미 - 김원율, 이빛나
- 북 - 최보근



## 권송희

판소리의 본질을 흐트러뜨리지 않으면서도 동시대의 감성과 형식으로 새로운 스타일의 판소리를 제시하는 특별한 보컬리스트이다. 국악뮤지컬집단 '타루'에서 배우 및 작창감독으로 활동했고 자유국악단 '타니모션'에서 활동했다. 권송희 창작판소리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판소리 LAB을 만들었으며 '이날치' 멤버이기도 하다. 국내는 물론 해외 무대로 활동영역을 넓혀 나가고 있는 권송희는 창작판소리에 집중하면서도 전통 판소리 공연을 올리기도 하고, 국내외 현대음악, 월드뮤직 뮤지션과의 협업 등 다채로운 활동을 펼치고 있다.



· 소리-권송희 / · 사운드,퍼커션-최혜원

## 인당수, 뱃노래, 축원

판소리 '심청가'를 모티브로 만든 '모던 심청' 중 '인당수'는 인당수로 향하는 심청과 선인들의 감정을 대조시킨 긴장과 슬픔이 극대화된 소리이다. '뱃노래'는 심청을 제수로 바친 뒤, 선인들이 현실을 한탄하는 노래이며 '축원'은 심청이가 살아서 돌아온 기쁨을 나누는 소리이다.

## 서도밴드 [8월14일]

판소리를 전공한 싱어송라이터 'sEODo'(서도)를 중심으로 독보적 장르인 '조선팝'을 선보이고 있다. '조선팝'은 전통을 기반으로 대중들이 찾아 들을 수 있는 음악을 이끌어낼 서도밴드만의 장르이기도 하다. 전통음악의 특징적인 이야기, 리듬, 멜로디를 기반으로 Pop적인 요소들과 적절하게 혼합하여 신선하고, 독보적인 장르를 선보인다.



- 보컬-서도
- 베이스-김태주
- 키보드-김성현
- 드럼-양정훈
- 기타-연태희
- 퍼커션-박진병

## 조선팝으로 듣는 '춘향가'

판소리 '춘향가'의 하이라이트 대목들을 '조선팝'으로 재해석하여 들려준다. 관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가사를 풀고 현시대의 감성에 맞는 편곡으로 대중들이 쉽게 즐길 수 있도록 하였다. 민족의 노래 '아리랑'을 시작으로 춘향과 몽룡이 달빛 아래에서 업고 노는 '사랑가'를 RnB 리듬에 한국적 감성을 엮어 선보인다. 춘향과 몽룡이 이별하는 '이별가'는 다이내믹한 편곡으로 선보이며 옥방 안에 홀로 갇힌 춘향이 님을 그리며 부르는 슬픈 노래 '썩대머리'와 홀로 옥방에 갇혀 님을 기다리는 춘향이의 노래 '언제까지'와 한양에 올라갔던 이몽룡이 암행어사가 되어 남원으로 다시 돌아오는 '내가 왔다'도 감상할 수 있다.

## 이발사 [8월14일]

전통음악을 기반으로 한 국악 EDM(Electronic Dance Music) 그룹이다. 모듬북과 장구 등의 국악기로 이루어진 타악 연주와 라이브 전자음악이 폭발적인 사운드를 구현한다. 팀을 이끌어 가고 있는 고석진은 국가무형문화재 제 7호 고성오광대 이수자이며 타악 프로젝트 그룹 '타'의 대표이다.

- 타악-고석진, 고석용
- 전자음악-강안나, 강한별
- 사자, 모듬북-김재민, 석철진
- 나비-김태현
- 드라마투르가-이선민



## 바다와 나비

김기림 시인의 '바다와 나비'에서 착안하여 작품화 하였으며, 몽환적인 선율과 파워풀한 사운드로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고 따라 부르기 쉬운 미니멀한 선율을 선보인다. 정령들의 시나위, 바다와 나비, 나빌레라, 하늘의 이발사, 나비의 꿈으로 구성된 작품이다.





[최병진 이수자팀]



## 두번째 달 [8월15일]

국내 최초로 에스닉 퓨전 음악을 선보인 월드 뮤직 밴드 '두번째 달'은 드라마 <구르미 그린 달빛>의 OST로 유명하다. "만약 지구에 달이 두 개가 있다면 어땠을까?"라는 상상에서 팀 이름이 비롯됐고 소리꾼 김준수, 고영열과 함께한 '판소리 춘향가', 경기민요 소리꾼 송소희와의 협업 작품 '모던민요'를 발표하며 국악과의 콜라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제14회 한국 대중음악상 최우수 재즈&크로스오버 음반상을 수상했으며 2018 평창 동계올림픽 폐막식 공연에 참여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 기타-김현보,이영훈
- 베이스-박진우
- 키보드-최진경
- 바이올린-조윤정
- 드럼-박종선

## 경복궁타령, 태평가 노래/채수현

'경복궁타령'은 두번째 달이 다양한 국악인들과의 콜라보레이션 작품들을 모아 발표한 '팔도유람'의 수록곡으로 시민들에 의해 다시 태어난 경복궁과 광화문 광장의 현재의 모습을 노래한다. 또한 경기민요의 대표곡인 '태평가'를 모던하게 풀어낸다.

- **채수현** 국가무형문화재 제57호 경기민요 이수자

## 이별가, 어사출두 소리/김준수

'이별가'는 두번째 달의 국악 프로젝트 앨범 '판소리 춘향가'에 수록된 곡으로 '갈까부다'로 시작 되는 이별 대목에 두번째 달의 '얼음연못'을 입힌 곡이고 '어사출두'는 이몽룡이 변학도의 생일잔치에 어사로 출두하여 죽음의 위기에 처한 춘향을 구하는 대목이다.

- **김준수** 전라남도 무형문화재 제29-4호 판소리 '수궁가' 이수자



# 동고동락 同古同樂 스태이지

Stage of Togetherness

---

8월 13일 (목 / Ths.) ~ 8월 14일 (금 / Fri.)

17:00 ~ 18:20

얼쑤마루 대공연장/ Eolssumaru Performance Hall



## 03 공연 프로그램 Performances



### “BTS가 선택한 무형유산 공연!”

‘옛 고(古), 즐거울 락(樂). ‘옛 것과 함께 모두가 즐겁다’.  
최근 외국인들의 이목이 집중된 한국 고유의 예술과 무형유산들로  
공연이 펼쳐진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어져온 K-무형유산 본연의  
힘과 매력을 만끽할 수 있는 무대

### 공연 프로그램

피리정악 및 대취타보존회<대취타> / 경기도립무용단 <부채춤>, <오고무> / 샘도내기 <봉산탈춤> / 최병진 이수자팀 <판굿>

### Performance Intention

**“An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Performance chosen by BTS!”**

“Everyone is happy with the old traditions,” and the performance will be held with unique Korean arts and intangible heritage, which have attracted a large crowd of foreigners lately.



국립무형유산원

National Intangible Heritage Center

## 03 공연 프로그램\_동고동락 스테이지

Performances\_Stage of Togetherness

### 대취타

국가무형문화재 제46호인 대취타는 왕의 행차나 군대의 행진, 또는 개선 등에 연주되던 행진곡이다. '취타'란 입으로 부는 악기(취악기)와 타악기를 뜻하는 것으로 선율을 연주하는 태평소를 비롯한 나발, 나각, 그리고 타악기인 북, 장구, 징, 자바라로 편성된다. 지휘자격인 집사가 '명금일하 대취타(鳴金一下大吹打)'라고 외치면 연주를 시작한다.



### 피리정악 및 대취타 보존회

- 국가무형문화재 제46호 피리정악 및 대취타



## 부채춤

부채춤은 한국 전통춤의 근대과정 속에서 성장하고 꽃피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춤이다. 죽선과 한지의 소박하고 운치어린 부채의 움직임은 마치 만개한 연꽃이 물결 따라 춤을 추는 듯 포근함과 우아함으로 감싸주며 부채를 펴고 접는 꽃부채의 흐름에 따라 다채로운 색조와 화려한 춤사위를 연출하며 고도의 조화와 율동감을 표현하는 무용이다.



## 경기도립무용단

- 경기도 대표 예술단체
- 길림성무형문화제 개막식
- 코리아 디아스포라 재외동포 초청행사

## 오고무

예로부터 우리의 전통 북은 모두가 인간사의 마음을 대변하는 울림의 소리로 인식되었다. 다섯 개의 북이 강약과 음양, 한배 등의 조화를 서로 엮물려 가면서 연주되는데 북을 두드리는 행위는 마치 북과 대화를 나누는 형식을 취하기도 한다. 고도로 숙련된 무용수들의 일체화된 몸짓과 손놀림이 돋보이는 작품으로 한국적 풍류와 역동적 북의 울림이 절묘하게 조화된 수작이다.



## 경기도립무용단

- 경기도 대표 예술단체
- 길림성무형문화제 개막식
- 코리아 디아스포라 재외동포 초청행사

## 봉산탈춤

국가무형문화재 제17호인 봉산탈춤은 약 200년 전부터 매년 단오와 하지날 밤에 행해진 놀이로 황해도 전역에 걸쳐 분포된 해서탈춤 가운데 가장 잘 알려진 탈춤이다. 다른 탈춤에 비해 춤사위가 활발하고 경쾌하며 휘뿌리는 장삼 소매와 한삼의 움직임이 화려하게 펼쳐진다. 사상좌춤, 팔목중춤, 사당춤, 노장춤, 사자춤, 양반·말뚝이춤, 미알할미·영감춤의 7과장으로 구성돼 있는데 오늘 무대에서는 팔목중춤과 서도풍류, 사자춤이 선보인다.



## 샘도내기

- 윤원중\_국가무형문화재 제17호 봉산탈춤 전수자
- 궁중문화축전 사자춤 연출 및 출연
- 대한제국 외국공사 접견례

### · 먹중춤

김영신, 강우종, 윤원중, 최민기

반주자 : 대금-윤석만, 해금-이채경, 장구-조애라, 피리-박준구

### · 서도풍류연주

악사 : 대금-윤석만, 해금-이채경, 장구-조애라, 피리-박준구

### · 사자춤

최민기, 김영신, 강우종, 윤원중

반주자 : 대금-윤석만, 해금-이채경, 장구-조애라, 피리-박준구





## 남사당놀이

국가무형문화재 제3호인 남사당놀이는 꼭두쇠(우두머리)를 비롯해 최소 40명에 이르는 남성들로 구성된 유랑연예인인 남사당패가 농어촌을 돌며, 주로 서민층을 대상으로 조선 후기부터 1920년대까지 행했던 놀이다. 남사당놀이는 서민층에서 발생하여 서민들을 위해 공연된 놀이로서 당시 사회에서 천대받던 한과 양반사회의 부도덕성을 놀이를 통해서 비판하며 풀고, 민중의식을 일깨우는 역할을 했다. 이번 공연에서는 풍물놀이를 시작으로, 곰방대나 고챙이로 납작한 접시모양의 버나를 돌리는 '버나놀이', 그리고 나이 어린 소년을 뽑아 여장(女裝)을 시켜 남자의 어깨 위에 올리고 노는 '무동놀이'와 '열두발상모놀이' 등이 선보인다.



## 최병진 이수자팀

- 국가무형문화재 제3호 남사당놀이 이수자  
- 사단법인 인천남사당놀이 보존회 공연팀장

- 버꾸/버나 - 최병진
- 장구 - 이지민
- 버나/공마당 - 박준섭
- 버꾸/버나 - 남영희, 백승희, 이철나
- 상쇠 - 김정주
- 태평소 - 이은송
- 북/공마당 - 김영생
- 무동 - 양소희, 박지은, 정혜인, 변지영
- 징/열두발 - 권재환
- 새미 - 김원율, 이빛나
- 북 - 최보근





# 이구동성 異口同聲 스टे이지

Stage of Harmony

---

8월 15일 (토 / Sat.)

17:00 ~ 18:20

얼쑤마루 대공연장/ Eolssumaru Performance Hall



## 03 공연 프로그램 Performances



### “재한 외국인 토크콘서트”

한국인보다 한국의 전통예술을 사랑하는 재한외국인이 꾸미는 토크 콘서트! K-무형유산에 대한 세계화 가능성과 그들이 생각하는 한국 전통예술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고 다채로운 연주도 있는 편안한 사랑방 콘서트

### 공연 프로그램

난시 까스트로 <경기민요> / 조세린 클라크 <가야금산조 >  
로르 마포, 민혜성 <판소리>

### Performance Intention

#### “Talk Concert by Foreigners Residing in Korea”

“Various people make the sound of Korea,” and it is a talk concert organized by foreigners living in Korea who love Korean traditional art more than Koreans.



## 03 공연 프로그램\_이구동성 스테이지

Performances\_Stage of Harmony

### 경기민요

서울과 경기도 지방에서 전승되는 민요로 국가 무형문화재 제57호로 지정돼 있다. 연주형태에 따라서 바닥에 앉아서 노래하는 '좌창'과 서서 노래를 부르는 '입창'으로 나눌 수 있으며 가락의 굴곡이 유연하면서도 다채롭고 명쾌하다. 장단은 굿거리장단, 세마치장단 등이 많아 흥겹고 경쾌한 느낌이 난다.

### 평양가, 한강수타령

'평양가'는 현재 전해지는 12곡의 경기잡가 중 하나로 월선에 대한 연정을 표현한 노래이며 '한강수 타령'은 한강의 풍광과 뱃놀이를 읊는 노래로 굿거리장단에 맞추어 부르는 흥겨운 노래이다.

### 는실타령, 오봉산타령, 뱃노래, 자진뱃노래

'는실타령'은 새가 울고 닭과 개가 짖는 등을 묘사하는 가사를 타령장단에 맞춰 부르는 노래고 '오봉산타령'은 봄날, 오봉산에 올라 경치를 감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뱃노래'는 경상도 지방의 노래가 전국적으로 퍼진 것으로 마치 노를 젓는 듯 흥겨운 느낌이 든다.



### 난시 까스트로 Nancy Castro Gonzalez

- 한국예술종합학교 장학생
- 경기민요 소리꾼

- 노래-Nancy Castro Gonzalez
- 해금-민경주      · 장구-박찬영
- 피리-김현승      · 가야금-박수빈

## 가야금산조

'산조'는 한국의 대표적인 민속기악곡으로 19세기말, 가야금의 명인 김창조에 의해 가야금 산조가 탄생된 뒤, 거문고, 대금, 해금 등 대부분의 국악기로 연주되고 있다. 느린 진양조로 시작을 해서 점점 빨라지는 음악적 형식을 띠고 있으며 장구나 북 반주에 맞춰 연주한다. 가야금 산조는 국가무형문화재 제23호로 지정이 돼 있으며 오늘 선보일 성금연류 가야금 산조는 남도음악의 애절한 맛과 경쾌하고 산뜻한 경기음악 스타일이 조화를 이룬 산조로 조의 변화가 다채롭고, 화려한 선율과 농현의 기교가 뛰어난 산조로 알려져 있다. 조세린 클라크는 성금연 명인의 딸, 지성자에게 이 산조를 사사했다.



### 조세린 클라크 Jocelyn Clark

- 국가무형문화재 제23호 가야금산조 및 병창(가야금병창) 전수자
- 전주세계소리축제의 자문위원
- 대전 거주외국인지원 자문위원
- 가야금-Jocelyn Clark
- 장구-신승균

## 판소리 홍보가 증 박타령

팔월 추석이 돼 동네에서 떡방아 찿는 소리가 들리지만 가난한 홍보네는 먹을 것이 없어 '가난타령'을 부르며 슬퍼한다. 할 수 없이 홍보는 지붕위에 열린 박이라도 타 보는데 이 대목이 바로 '박타령'이다. 홍보는 박을 세 번 타는데 오늘 감상할 부분은 첫 번째 박을 타는 부분으로 박을 타니 돈과 밥이 나온다.



### 로르 마포(소울) Laure Mafo

- 한·아프리카재단 홍보대사
- 제24회 전국판소리 경연대회 최우수상
- 국악한마당 전국민요자랑대회 장려상

· 소리-Laure Mafo  
· 북-민혜성

## 판소리 춘향가 중 사랑가

판소리 춘향가의 눈대목(하이라이트 대목)으로 춘향과 이도령의 사랑노래이다. 두 사람의 사랑이 점점 깊어가는 과정을 진양조, 중중모리로 부르며, 서로 문답하는 형식으로 되어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한국어와 프랑스어로 부르는 특별한 사랑가를 만날 수 있다.

## 사회자



### 민혜성 Min Hye-seong

- 국가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 '흥보가' 이수자
- 전통예술단 <아우름> 단원
- 소리-민혜성, Laure Mafo
- 북-권은경





## 04 오시는 길 Directions



[55101]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서학로 95 국립무형유산원



## 버스로 오실 때

### 전주터미널 (고속·시외버스) 하차시

- 고속버스터미널, 불교회관 및 시외버스터미널에서 1000번 버스 이용 -> 남고사입구 하차
- 국민은행금암지점에서 429번, 785번, 752번, 725번 버스 이용 -> 국립무형유산원정류장 하차
- 190번 버스 이용 -> 남고사입구 하차



## 기차로 오실 때

- 전주역 첫마중길 정류장에서 1000번 버스 이용 -> 남고사입구 하차
- 택시 이용 (약 20분 소요)



## 자가용으로 오실 때

- 경부고속도로 동전주 IC
- 호남고속도로 전주 IC



## 주차

- 서편주차장
- 주차요금 무료

